

금융권 내년 화두는 '긴축·해외진출'

광주은행·농협, 리스크 관리·조직 감량
삼성생명·화재, 중국·인도로 영역 확대

불황과 장기 저성장 기조에 따라 금융권도 일제히 비상경계 체제에 돌입했다. 내수 침체, 가계·기업대출 부실, 금융 규제 등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수익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보험·카드사들은 내년에는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지속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조직과 사업

비, 채용 축소, 국외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45주년을 맞는 광주은행도 내실경영과 적정성장을 키워드로 삼고 경기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감량'을 시작했다. 농협은행은 최근 부서를 기존 41개에서 35개, 부행장 자리를 9개에서 7개로 크게 줄였으며 우리은행은 최근

부행장급 자리를 15개에서 12개로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임원 숫자를 소폭 줄이고 본점 인력을 영업점으로 내보내는 등 본점 '슬림화'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은 내년도에도 리스크 선제 관리와 내실경영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삼성화재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현대해상은 보장성 보험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험 영업 부문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도 내년에 내실 경영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금융권이 경기 침체로 잔뜩 움츠러 들었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 준비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PB센터를 통해 부동산과 자산관리를 접목한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미 지난 7월 부동산연구실을 만들어 시장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다. LA한미은행 인수를 재추진하는 등 미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외국은행 M&A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면서도 지난해 말 시작한 개인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다이렉트뱅크 서비스 영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중국에서 살 길을 찾기로 했다.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며 삼성생명은 인도 등 국외 진출 확대를 글로벌 보험사 도약을 노린다. 올해 영국 진출 등으로 화제를 뿌렸던 현대캐피탈은 내년도에도 국외에서 제휴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SK카드는 자사의 강점인 모바일과 체크카드 분야에 집중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연협뉴스

자영업자 4명중 1명은 60대

올 25% 급증...90%가 '나홀로 장사'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4명 가운데 1명꼴로 60세를 넘겼다. 환갑을 지낸 자영업자의 90%는 영세한 '나홀로 자영업자'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49~57세)가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자영업자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 조사를 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43만8000명으로 작년 8월(136만3000명)보다 5.5%(7만5000명)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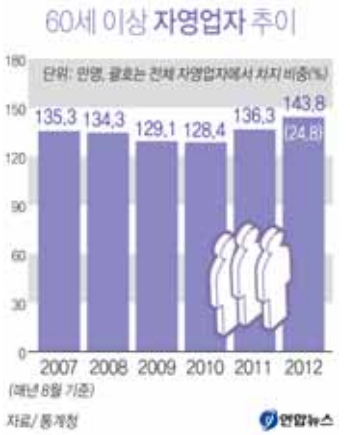
이런 증가율과 증가 규모는 다른 연령대보다 컸다. 30대는 4.5%(3만5000명), 50대는 3.5%(5만9000명) 늘었고 청년층(15~29세)과 40대는 줄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매년 8월 기준으로 2007년 135만3000명에 달하고서 해마다 줄어 2010년 128만4000명까지 줄었으나, 지난 2년

간은 증가세다.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2007년 22.1%에서 연 0.1~0.4%포인트씩 늘어 2010년 22.8%로 상승했다. 그 후 2011년 24.0%, 올해는 24.8%로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 8월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13.2%)의 감절에 가깝다.

환갑을 넘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129만1000명으로 해당 연령대 자영업자의 90%를 차지했다. 다른 연령대의 1인 자영업자 비중이 30대 62%, 40대 64%, 50대 74%인 점에 견줘 월등히 높다. 나홀로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만큼 경기 침체의 악영향을 먼저 받는 취약층으로 꼽힌다.

50대 자영업자도 최근 급증했다. 8월 기준으로 2009년 159만5000명에서 2010년엔 160만8000명으로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작년 169만7000명에 이어 올해는



175만6000명까지 불어나 2년새 15만명가량 늘었다. 50대가 전체 자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5.0%에서 작년에는 29.9%로 올라 40대(28.9%)를 제치고 자영업 최대 연령층이 됐다. 올해는 30%를 넘었다. 5년 사이 5%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한때 자영업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던 40대는 2009년(31.4%) 이래 4년째 줄며 올해 27.6%까지 하락했다.

/연협뉴스



임효섭 보해 사장이 지난 24일 보해 광주지점에서 대학생 14명, 고등학생 8명에게 보해덕천장학금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해 제공)

보해, 호남 인재육성에 3200만원

보해(사장 임효섭)는 지역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보해덕천장학회(이사장 이동휘)가 호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2012년도 하반기 장학금 32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보해덕천장학회는 지난 24일 보해 광주 지점에서 보해 관계자 및 대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 지역 대학생 14명에게 각 200만원씩, 고등학생 8명에게 각 50만원씩 2012

년도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보해덕천장학회는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지난 11월 호남지역의 대학 총장 및 각 학교 장들에게 추천을 받아 장학금 수여자를 선정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로 보해덕천장학회는 지난 1981년 장학재단 설립 후

1982년부터 2012 현재까지 31년 동안 총 3472명의 지역 학생들에게 32억 99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보해 관계자는 "보해덕천장학회는 교육기회 균등 실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장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산구 평동산단 관리 '골치'

관리기금 고갈 위기

광산구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평동산단 단지의 관리업무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 1998년 25억원의 교부금을 '평동산단단지 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일관 유지관리 업무를 광산구가 맡도록 했다. 또한 이 과정에 해당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 수익금만을 유지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IMF 이전까지는 예금리

가 높아 이자수익이 4억원 가량이었으나 지난 2006년부터는 이자수익이 대폭 떨어져 매년 1억2000여만원 가량을 조성된 기금에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당초 25억원이었던 관리기금이 2011년 현재 18억4000여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로 평동3차산단 단지가 완공될 경우 기금의 원금 손실 폭이 더욱 확대 돼 수년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의회 감동호 의원은 최근 열린 188회 정례회 구정질의에서 "오는 2016년 3차 평동공단이 완공될 경우 이자 수익으로는 평동산단 관리비를 감당할수 없는 입장으로 평동산단단

지 관리기금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이자수입만으로 관리비 충당이 어려워 지난 2010년부터 광주시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마저 부족한 실정이다"며 "3차 산단단지가 완공되면 광주시가 직접 관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동산단단지의 경우 현재 5명의 직원 인건비로 년 1억8000여만원의 비롯해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과금으로 1억6000여만원 등 매년 관리비로 총 3억4000여만원 가량이 집행되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농어민들 "대형마트 규제 반대"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농어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수산물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축육협회, 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 등 6개 농·축·수산 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가 의무 휴무를 시작하며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무가 시작된 4월 이후 농어업법인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 감소했다"며 "마트에 납품하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무 휴무 확대를 배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농수축산업계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

"4월이후 매출 24% 줄어" 유통법 개정안 반대 성명

전법 개정안은 농어민을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것"이라며 "추가 규제는 결코 시행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의무휴무가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치권에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를 검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협뉴스

탈북미녀와 감동배리어티쇼!

함께하는

이것이 만나리 갑니다

CHANNEL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